



#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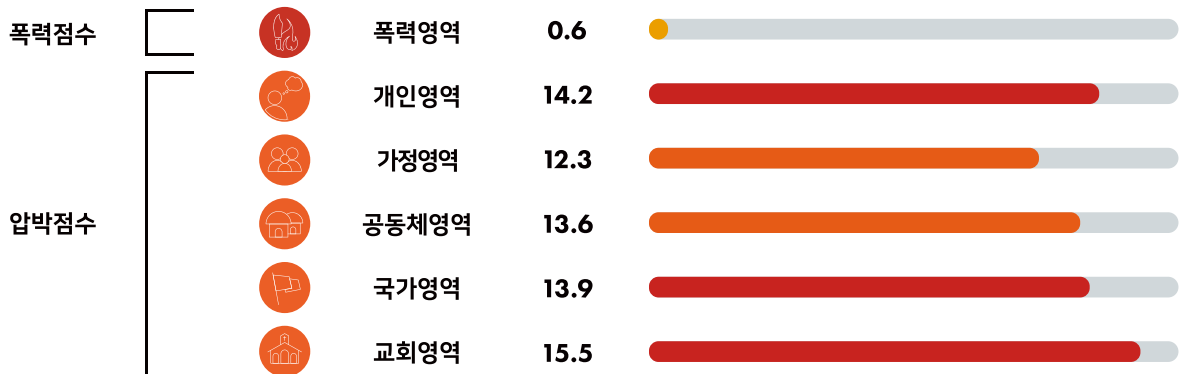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국

##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29위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 중요한 발견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국가 요원이 신자들과 종교 단체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한을 가한다. 러시아 정교회와 아르메니안 사도 교회까지도 주일 예배는 감시를 받을 수 있다. 기독교 관련 자료의 인쇄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가족, 친구, 지역 사회로부터 가장 심한 인권 침해에 당한다.

#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 국가 정보

지도자 : 세르다르 베르디무хам메도프 대통령

인구 : 6,202,000명

기독교인 수 : 66,700 명<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독재적인 대통령제 공화국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66,000	1.1
이슬람교도	6,079,000	96.8
불가지론자	110,000	1.8
무신론자	24,100	0.4

출처<sup>2</sup>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의 수장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야당은 용납되지 않는다.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실업률과 빈곤율은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끄는 환경에 수감하는 강제 노동 교도소가 있다.

헌법은 공화국으로서 세속 국가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수니파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다. 대부분의 투르크멘인은 이슬람의 가르침보다는 전통을 따른다. 국가는 종교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여, 무슬림 성직자를 임명하거나, 종교 활동을 감시하고, 투옥, 고문 및 행정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부적합하게 처벌한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은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이며, 수도 아쉬가바트와 주요 도시에 많이 거주한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소수 기독교인들은 교파 간의 분열과 불협화음으로 정부의 손에 넘어가서 약한 상태에 있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3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큰 교파는 로마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이다. 개신교 신자들은 국가가 허락하는 구조 밖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2022 IRFR에 따르면: “과거에 이미 등록한 종교 단체들을 포함하여, 모든 종교 단체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현장을 개정할 때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재등록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8세 이상 정회원이 50명 이상이 되어야 종교 단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비종교 민간단체도 이와 유사하다.” “미등록 종교 단체와 등록된 종교 단체의 미등록 교인은 합법적으로 종교 활동, 예배 장소 설립, 예배 활동으로 모이는 모임, 종교 자료 제작, 배포, 혹은 전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sup>1</sup>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sup>2</sup>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활동은 100~2,000 마나트 (manat, 57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회원보다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과 비밀 기관이 이들의 활동을 계속하여 감시한다. 외국 기독교인은 관광객으로나 다른 일로도 방문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또한 자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방문하는 것도 제약을 받으며 출국 비자가 자주 거부된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 관리들의 인권 침해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다. 무슬림 출신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압력은 농촌 지역에서 더 강하다.

##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세계 박해 지수의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러시아 정교회 (ROC)는 정부의 제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해받지 않는다. 예배는 감시될 수 있지만 방해받지 않고 진행된다. 기독교 자료의 인쇄나 수입은 제한된다.

###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국가로부터 인권 침해와 가족 및 사회의 강한 압박을 겪는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비전통 기독교 공동체는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 교단이 포함된다. 개종자 외에도 이런 공동체는 신앙에 대한 권리 침해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교회인 경우에는 급습, 협박, 체포, 벌금 부과 등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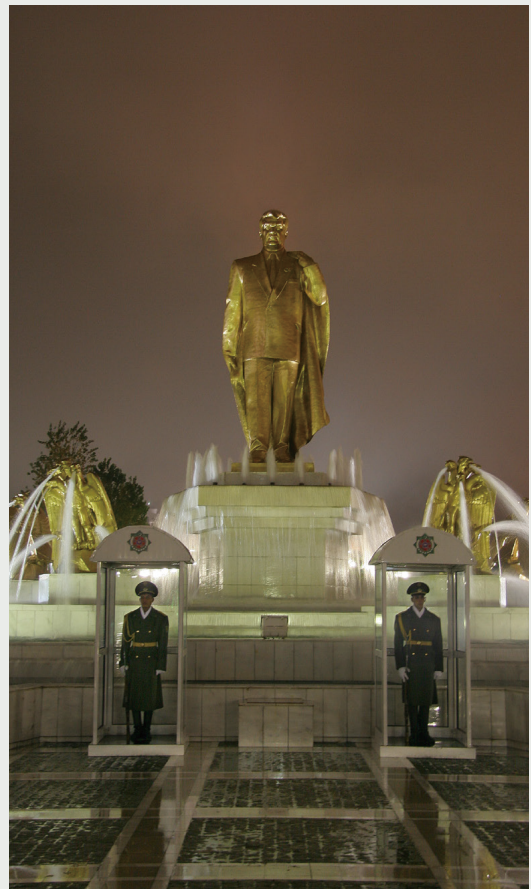
##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 이슬람의 탄압

오직 국가에서 통제되는 기관들만 승인된다. 개신교는 국가가 제한한 구조의 밖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극단주의자” 라고 알려져 있다.

### 씨족 압박과 혼합된 이슬람의 압박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은 가족이나 지역 사회로부터 이슬람으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여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개종자들은 가정에 감금되거나 지역사회에서 축출당하기도 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하려 한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가정 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의 법적 보호에 관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곳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속한다. 여성 개종자들은 특히 구타, 가택 연금, 언어 학대, 위협, 축출, 납치, 강제 결혼에 특히 취약하다. 여성과 소녀들은 성희롱과 강간을 당하나 낙인과 수치심과 가해자의 면죄부로 인해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여성 학대는 때로 남편, 가족, 교회에 대한 협박과 고문의 도구로 사용된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신체적/ 심리적/ 성적/ 언어적

### 남성

투르크메니스탄 남성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이다. 따라서 남성에 대한 박해는 곧 그들의 가족과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두려움과, 분노,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국가 요원들은 기독교인 남성에서 벌금을 부과할 구실을 찾고, 당국은 그들의 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교육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여 성경적 훈련을 받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군대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남성은 차별과 협박에 직면한다. 가족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무슬림은 기독교인의 사업을 방해하고, 개종자는 괴롭힘, 심문, 차별, 수치심, 구타를 당한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기독교 종교적 자료, 가르침, 의식의 접근 금지
- 상속 또는 소유물 박탈
- 사업/ 직업/ 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양심에 반하는 군대/ 민병대 징집
- 폭력-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29	70
2023	26	70
2022	25	69
2021	23	70
2020	22	70

투르크메니스탄의 2024년 박해 점수는 2023년 보다 약간 높지만 1점 미만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상황은 안정적이며 일부 압력과 폭력 분야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었다. 국가 요원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감시하고, 무슬림 가족, 친구,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 자료에 따르면 최소 22명의 기독교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하였다. 보고된 사례는 대부분 구타, 강제 격리 등 개종자 가족 내 폭력과 관련이 있다.

월드와치리포트 연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 기독교인
2024	22
2023	22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 개인 영역

정부는 종교적 책자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기독교 자료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위험하며, 소유는 개종의 증거로 여겨지고, 가족과 문화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된다. 가족과 지역사회는 개종에 대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제외, 또는 폭력으로 다룬다.

### 가족 영역

무슬림이 지배적인 사회는 개종자들의 자녀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 특히 개종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의지에 반하여 이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 개종자의 개신교 신자의 자녀는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강요하기 위해 더 큰 공동체에게 배척을 당한다.

### 공동체 영역

개종자들은 가족과 이슬람 지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기독교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 협박을 가한다. 지역 사회인들이나 국가 당국은 전

도의 혐의가 있거나 등록되지 않은 개신교인들에게는 감시를 하고 괴롭힌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위협, 차별, 폐쇄, 벌금형을 받는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현지 이슬람의 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국가 기관에서 급습하는 것이다.

### 국가 영역

기독교인을 향한 사회적 적대감은 사회와 종교의 통합을 조장하려는 거대하고 적대적인 국가 기구에게 힘을 받는다. 종교 법에는 미등록 종교 단체 금지와 사립 종교 교육에 대한 법이 포함되어 있다. 정권이 기독교인을 검열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야당을 금지한다.

### 교회 영역

미등록 교회가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든 등록 교회는 새 법에 의해 3년 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개신교는 기독교인에게 적대감을 품는 집 주인 때문에 건물을 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당한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투르크메니스탄은 다음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투르크메니스탄은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 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은 습격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벌금을 부과 당한다 (ICCPR 제9조, 18조)
-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활동들은 당국들에 의해 면밀히 감시를 당한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과 폭력을 경험한다 (ICCPR 제18조)
- 종교 문헌에 대한 접근권은 극심하게 제한되고 공식적인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된다 (ICCPR 제18조, 19조)
- 여성 개종자들은 신앙을 이유로 신체적 구타, 가택 연금, 언어적 및 신체적 학대, 위협, 그리고 본인 가족에 의한 거절에 직면한다 (ICCPR 제9조, 12조, 18조)

##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정부는 특정 종교 단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 바하이교도, 모두 국가로부터 강도 높은 감시와 억압을 겪고 있다. 미국 국무부 (IRFR 2022, 투르크메니스탄)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종교적 이유로 체포된 무슬림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여호와 증인은 한 해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구금되거나 수감된 새로운 사례는 없었다."





## 오픈도어의 투르크메니스탄 사역

오픈 도어는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투옥되고, 가족과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생계와 일자리를 박탈당할 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핍박 받는 교회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 문서 배포
- 기도 지원
- 성경 훈련
- 어린이/청소년 훈련
- 여성 사역
- 현지 사역
- 사회 및 의료 사역
- 직업 훈련
- 어린이 재활 센터와 같은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

